

교 회 목 표

신앙인 예배
천국일본 향상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총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3:1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2 총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 금요일의 전례요약 1

구약성경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구약성경에 대해서 배운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례를 기억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1. 하나님의 약속
 - 1) 성경 역사의 시작
 - 2) 구약에 의하여 하는 이유
2. 약속이 있어야 할 이유
 - 1) 창세기 12에 나타난 원시 역사상 1~2장
 - 2) 창세기 12에 나타난 원시 역사상 3~11장
3. 약속을 이루어 나가기
 - 1) 설화의 배경이 되는 약속(창 12~50장)
 - 2) 이스라엘의 시작을 1~15장 '내가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 3) 이스라엘 분사의 본질(출 15:22~24장) '내가 나와 나 사이내 내 '언약'을 세울 것이라'
 - 4) 가나안 정복(수 1~11장, 23~24장) '네 자손들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노라'
4. 약속과 율법의 관계
 - 1) 언약 체결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해: 신명기(율법의 본질)
 - 2) 구약에 나타난 율법에 대한 이해의 변화(스 7~8장, 9~10장, 느 8장, 9~10장)
 - 3) 모세와 같은 신자(예수)를(율법, 약속의 성취, 율법의 완성)
5. 하나님의 약속의 확장
 - 1) 종족으로서의 이스라엘(창 12~50장) '사사 시대'
 - 2)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의 비극(삼상 13장~삼하 1장)
 - 3)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 안에서 그의 영행(삼하 2장~삼왕 2장)
 - 4)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소망

머물면서 그러면 이제부터 구약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구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면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구약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읽지 않는다면, 구약성경은 세상에 흔하게 널려있는 고대근동역사책이나 위전전, 또는 몇몇 사람들의 생애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왜곡되게 읽혀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① 성경 역사의 시작

이 땅의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는 구약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주로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약성경을 대한다. 물론 그 원인을 많은 설교자들과 성경교사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들은 구약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성경역사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구약성경 속에서 위대하게 평가되는 인물들의 성공비결에 비중을 두고 가르친다. 그 덕분에 구약성경을 곧잘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언약의 말씀이요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인간을 드러내는 곧잘의 이야기로 전락시켜 버리려 한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구약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명백하다. '성공'이라는 단어는 대중에게 매우 관심과 인기가 높은 주제이며, 그렇게 설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들 볼리도록 수 있기 때문이다.

② 그보다먼저 구약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말하건대, 구약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말씀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신약에서 발견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신약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시작하고 있다. 즉, 바울과 누가, 심지어 스테판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구약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뜻이다(골 1:15, 16, 행 7장, 행 13:16~23, 눅 24:27). 또한 구약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밝혀주는 말씀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즉, 창세기 11:1에는 하나님에 의한 세계의 기초가, 12:1~3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초가, 그리고 17:7, 8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게 될 땅의 기초가 언약으로 주어졌으며, 마침내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의 뿌리는 구약이요 그리스도인의 뿌리는 아브라함이다. 마지막으로 구약을 꼭 읽어야 하는 다른 한 가지의 이유가 더 있는데, 그것은 구약성경이 은총과 은혜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히브리 민족을 향한 은혜의 약속이요(그리스도 유대공동체의 특징은 예배와 회고록이다), 모든 인류를 향한 은혜의 약속이요(창 12:3과 마 28:19),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수치, 전통, 그리고 전환”

다가오는 2002년 제2차 청지기훈련

6월12일(수)에서 14일(금)까지

2002년 제2차 청지기훈련이 다음주로 다가왔다. 지난 2월에 선포되었던 '성만찬'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이번 청지기 훈련에서는 '수치' (시 83:16~18), '전통' (사 66:7~9), 그리고 '전환' (신 4:29~30)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될 것이다. 이 주제들을 통해서 '영혼의 참된 기쁨' 그리고 헌신에 이르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전교'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선포될 말씀은 모든 지체들에게 믿음과 결단, 그리고 새로운 열정을 뜨겁게 불러일으켜 줄 것이다. 횡수를 대해 갑수룩,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청지기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말씀을 전하실 위임목사와 청지기 훈련을 준비하는 일꾼들, 그리고 참가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2. 약속이 있어야 할 이유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언약, 즉 약속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셨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피조물에게 영향 받기를 원하셨다.

① 창세기 12에 나타난 원시 역사상 1~2장

창세기 1~2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기록되어있다. 즉,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창조'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근원' 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이시고, '인격적이고 실존적인 분' 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창조주요 주관자이시며 실존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것을 명백하게 말해준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따라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② 창세기 12에 나타난 원시 역사상 3~11장

창세기 3~11장에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존재였던 '인간'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므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므로 인간과 논의할 필요가 없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게 될 때, 가장 최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창세기 3~11장에는 인간의 '완전한 불순종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아담과 하와, 가인,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등, 창세기 3~11장에 나타나는 모든 인간의 반응은 오직 불순종과 악한 행동뿐이었다. 그러므로 창세기 3~11장에 나타난 인간의 반응, 즉 인류역사는 불순종과 죽음에 이르는 절망만을 남겨놓음을 뿐이었다. 인간에게 더 이상 기대할 필요가 없다.

3. 약속을 이루어 나가기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하신 언약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영원하신 언약을 이루어나가기로 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으며,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이루어나 가셨다.

① 설화의 배경이 되는 약속(창 12~50장)

하나님께서 새롭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지의 약속을 주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는 것과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위하여 속하였고, 이삭 역시 독방을 가졌말을 했으며, 야곱은 속이는 자로 살았다. 즉 언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의 언약을 파고드는 자들로 나아가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언약을 이루어나 가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그것은 그의 자식 때문이 아니라 믿을 때문이었다. 그는 믿음으로 본토를 떠났고, 믿음으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쳤다. 사실 족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세상적인 축복은 결코 아니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나라를 살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볼 뿐 소위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히 11:13).

② 이스라엘의 시작을 1~15장 '내가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대로 출애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큰 민족에 대한 언약은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노예였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율법과 성약까지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계속적인 불순종과 거역은 한 세대가 광야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맞이하였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지만, 이스라엘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였다.

(다음주에 계속)

Walk in the light (Isaiah 2:5)

"Come, house of Jacob, and let us walk in the light of the Lord"

God called His people the house of Jacob. Jacob means "trickster" or "liar". Jacob's early life was a terrible situation but God called him. The call to the house of Jacob is singular, but the invitation is plural. Through the house of Jacob the whole world is given the opportunity to walk in the light. Whoever comes to the Lord, all Christians, can walk in the light of the Lord. Isn't that a great invitation? Sadly, there are so many Christians, so many of God's people who refuse the light because they cover their hearts with a veil. Let's pray for the ingathering of the house of Jacob (tribes of Israel) to come to the Lord.

The beginning of today's chapter tells us, "Now it will come about that in the last days the mountain of the house of the Lord will be established as the chief of the mountains, and will be raised above the hills; and all the nations will stream to it. And many peoples will come and say, 'Come, let us go up to the mountain of the Lord, to the house of the God of Jacob; that He may teach us concerning His ways and that we may walk in His paths.' For the law will go forth from Zion and the word of the Lord from Jerusalem" (vv. 2&3). Everything comes out from Jerusalem. God treats us to the spiritual Israel, the children of God, true believers. What an invitation! It is the Creator's invitation. The Lord of righteousness' invitation. It is the love of God's invitation.

There is a lot of meaning here in God's invitation. He mentions light. What is the light that comes from Jerusalem? That's the Word of God. That's Jesus. Whoever knows the light, Gentile or Jew, if they come to Him they will get rewarded. They will receive increase. They will find eternal blessing. The Bible clearly tells us, "This is the message we have heard from Him and announce to you, that God is Light, and in Him there is no darkness at all" (1 Jn. 1:5). Please don't refuse the invitation of the Gospel, the Good News. When you look at Ezekiel preaching to dry bones you find hope. The Light is shining there. Good results follow. Whoever comes to the Lord God is a new creation, a new convert. Such joy and happiness is created where none was able before. The words "come" and "let us" are an invitation for you to meet all God's people, the dedicated and wonderful people in the house of Jacob. You can march up to eternal living.

Accept this invitation. Walk in the light of the Lord. No other light is comparable to it. It is designed especially for the Lord's own people. My friend, no other walking is so safe and so glad some. No other people are so able to walk in the light of God. Your actions will suit the day because your eyes are opened, your faith is strengthened, and your heart is purified. Come now and feel the warmth and tenderness of God's light.

In the light you find certainty for the mind. No questions. When the sunshine of the Holy Spirit glows there are no questions. Reason makes guesses or shows that it knows nothing. Fanaticism, superstition, and human authority all fall short. Don't confuse yourself with these worldly ways. Your duty is to try and get out from such falsehood. All the philosophies of the day, all the knowledge gained from textbooks are not the light. Only from the light of the Lord is God's revelation sure, infallible, and unalterable. All other light is darkness when you compare it.

In the light you find rest for the conscious. Amen. You see Jesus, His blood, and His perfect pardon, "bu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Himself is in the Light, we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and the blood of Jesus His Son cleanses us from all sin" (1 Jn. 1:7). You see His perfect righteousness covering us and making us pure before God. In the light you find direction for the judgment. When you understand the Bible you see your sin. You see what is wrong and what is right. You see God's love, providence, and the future. This insight gives you new vision to see things in their true colors. You learn to know the right way and the wise course to follow. You discover the heathens snares and are able to avoid them.

In the light you find delight for the soul. Your personal condition is complete in Him. In the dealings of your Father's hand you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In the struggles which go on within, you know that they are symptoms of grace which will bring forth comfortable hope. In the future of death and eternity your soul finds joy, not distress. It is in this beautiful light that you can only find communion for your heart. You see God and you feel perfect peace. You see grace and enjoy full assurance. You see Jesus and you are in conscious union with Him. You feel the Spirit of God in your walk with Him. You see the saints delight in their grace. Amen.

Oh, house of Jacob, we are the poor and terrible, but He still calls us. He invites us. Please accept His great invitation so that the Holy Spirit may lead you to enter into the light of God. Remain in His light, walking therein quietly from day to day. Faithfully walk in His Word to progress toward perfection. Come, let us walk together in this light. We are the true children of light, "See how great a love the Father has bestowed on us, that we would be called children of God; and such we are" (1 Jn. 3:1). Living in God's light will prepare us for enjoying it in all its glorious brightness. Let us live in it now and forever. God will prepare us for enjoying it in all its glorious brightness. The Lamb is the light that shines perpetually for it is, was, and will always be everlasting. ㄴ



김석관 목사

빛에 행하자 (사 2:5)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빛에 행하자”

모든 족속을 향한 초청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야곱 족속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속이는 자’ 또는 ‘거짓말쟁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의 초반기 삶은 혹독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야곱의 족속을 향한 소명은 단순적인 것이지만, 초청은 복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야곱 족속을 부르셨지만, 실제로는 모든 족속을 초청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야곱 족속을 통해서 모든 세상이 빛 속을 걷게 되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주께로 나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주의 빛 가운데서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초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빛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베일로 덮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 족속(이스라엘 족속)이 주께로 나아와 여호와와 거룩한 성전에 모여들도록 기도하십시오.

위대한 초청

오늘의 본문이 포함된 이사야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미에 여호와와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오라니 만민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와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2절~3절).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신자들로 간주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초청인지요! 이것은 창조자의 초청이요, 의로우신 주님의 초청이며, 사랑의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하나님의 초청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언급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빛을 깨닫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들은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점점 더 풍성한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요일 1:5). 좋은 소식인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마른 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에스겔을 바라보실 때, 소망을 발견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빛이 그곳을 밝게 비춥니다. 선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주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자입니다. 이전에는 어느 곳에서든 존재할 수 없었던 이러한 기쁨과 행복은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오라” 또는 “우리가 ~하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야곱의 집에서 현신되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백성들을 향한 초청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향해서 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빛에서 행함

여러분은 이러한 초청을 받아들이십시오. 주의 빛 속에서 행하십시오. 그 어떤 때도 주께서 비추시는 빛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빛은 주의 소위된 백성들을 위해 특별하게 마련된 빛입니다. 충현의 성도 여러분, (주의 빛 속에서 행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안전하고 즐거운 것은 없습니다. 또한 (주의 백성 외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서 걷는 여러분의 행동을 오늘날 적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눈은 열려졌고, 믿음은 강해졌으며, 여러분의 마음은 정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오십시오. 그리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빛을 느껴 보십시오.

빛에 대한 분별

빛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마음에 확신이 찾아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령의 빛이 태양처럼 뜨겁게 달아오를 때, 더 이상 의심이나 질문은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추측이나 보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것도 알 수 없는 것을 만들어 낼 뿐입니다. 확신과 미신, 그리고 인간의 권위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적인 수단들에 대해 혼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임무는 그러한 거짓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철학을 즉, 교본들로부터 얻게 된 모든 지식은 빛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빛으로부터 내려온 것만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확실하고, 전혀 오류가 없으며, 불변한 계시입니다. 여러분이 그 빛을 비교할 때 다른 모든 빛은 어두운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깨닫는 은혜

빛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의 의식은 참된 안식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와 그분의 보호와 완전한 용서를 바라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 즉, 여러분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주님의 완전한 의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순결하게 하심을 바라봅니다. 또한 여러분은 빛 가운데서 성탄에 대한 가르침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깨닫게 될 때, 놀랍게도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을 잘못하였고, 무엇을 잘하였는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리, 그리고 그분의 궁극적인 미래의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찰력은 세상을 진정한 세계로 바라보도록 여러분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길과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슬기로운 과정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은 이교도들의 율가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것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서 누리는 축복

빛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은 영혼의 즐거움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태는 그분 안에서 완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부르러온 손길로 여러분의 영혼을 이루어만지면,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합리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면에서 계속되는 몸부림 속에서도, 여러분은 그러한 것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소망을 이끌고 오게 될 은혜의 정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과 영원이라는 미래에 대해, 여러분의 영혼은 기쁨을 발견할 것이며, 비탄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인 교제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아름다운 빛 속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완전한 평화를 느낍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바라보고 충만한 확신으로 기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지각은 그분과 함께 연합합니다. 여러분은 그분과의 동행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은혜 속에서 성도의 즐거움을 바라봅니다. 아멘.

빛의 자녀들을 향하여

오, 야곱의 족속, 우리는 가난하고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위대한 초청을 받아들이십시오. 성령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의 빛에 거하십시오. 남마다 조용하게 그 빛 가운데서 걸으십시오.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의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걸으십시오. 오십시오. 이 빛 속에서 함께 걷도록 합시다. 우리는 참된 빛의 자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와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요일 3:1).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광채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예비해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빛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스러운 광채 안에서 우리에게 빛 즐거움을 우리에게 베풀어주시길 것입니다. 어린양은 지금이나 과거에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언제나 끊임없이 밝게 빛나는 찬란한 빛이십니다. 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스리랑카

장명자 (권사, 6교구 스리랑카 단기선교팀)



스리랑카 사람들은 까만 피부에 까만 눈이 아름답게 빛나는 자족하며 항상 웃으며 사는 친절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은 갈급해 곳곳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다. 온 나라에 거대한 불상이 가득하고 카톨릭 성당과 이슬람 모스크가 거리거리에 있었다. 소수의 개척교회가 있었으나 10km-40km를 가야 했다.

어린 사역을 위하여 성할타이로 번역해 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책이 압수 당할까 봐 각자의 개인 트렁크에 분산 수용하고 기도하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어떤 책임자 같은 사람이 우리를 한 구석에 세우더니 무사히 통과시키는 것이 아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무사히 통과한 성경책은 참으로 유용하게 그리고 널리 보급되었다. 여기 저기서 손을 벌려 성경책을 찾았고 13살 짜리 무슬림 소년도 성경을 원하며 달라고 했다.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 있는 그들의 심령상태를 볼 수 있었다.

'가벨라'와 '크리스찬' 형제의 집을 심방가는 도중에선 전혀 예상도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신기한 듯 선교팀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자 40여명의 사람들을 넓은 광장에 모이게 한 후 성할타이로 번역해 간 찬송가 복사본을 나누어주고 함께 찬양했다. '포리산느' 집 앞에서는 45명의 무리들이 다 나와서 성경을 달라고 손을 내밀어 성경이 든 상자를 열어 나누어 주어도 다 공급할 수 없었다. 한 어린이에게 전도지를 주며 "큰 소리로 읽어보시오" 했더니 복음이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리웠다. "예수스 와한세 바우거러 마르네이러 반란단 켈리우미러 패미리 데위안 와한세이(예수님은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이에요)." 매일 읽으라고 부탁하고는 '갈리보 위타이나' 지방에 예수를 영접한 '딜라니'라는 사람이 있어

그 집으로 갔다. 이 곳은 3년 전에 왔던 곳이다. 3년 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하며 밀박랐었는데 그 때 심은 복음이 자랐는지 지금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었다. 그 때 돌팔매질을 하던 5명의 핍박자들도 모두 집회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자녀로 거둔다 말 '딜라니'를 통하여 그 가정과 이웃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한 귀중한 순간이었다. '라도따라이니'라는 지역에서 만난 한 대학생에게는 전도책자를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읽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자민디'의 집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원했지만 다 주지 못하고 오게 되어서 아쉽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었고 그 주소를 이름에 적어준 사람이 320명에 다다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었다 한 소년의 무슬림 아버지는 복음을 거부하고 딸을 데리고 가버렸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스리랑카. 복음이 떨어진 곳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맺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스리랑카를 떠났다.

선교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금 깨닫는다.

심자가에서

사도들이 전한 설교의 핵심

가끔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사도행전에 있어서 사도들의 강조점은 예수의 죽을 보다는 부활이며, 어느 곳에서나 사도들은 그의 죽음에 대한 교리적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그들의 설교가 잘 정리되어 있다. 물론 두 사도의 설교의 대상이나 내용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지만 두 사도가 선포한 내용 속에는 몇가지 중요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로, 비록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인간의 죄악에 의한 것으로 돌리긴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선언한다(행 2:23; 3:18; 4:28).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미리 아신 바를 연행해 놓으셨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이다. 바울 역시 고전 15장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라고 이 사실을 강조했다. 둘째로, 이들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성령대로, 즉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대로 죽으셨다고 선포했고 그가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나무'라고 불렀다(행 5:30; 10:39; 13:29). 물론 사도들은 신명기 21:22-23에 나타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구절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도는 그들의 신식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죄책을 담당하는 것으로, 혹은 저주를 담당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용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다. 셋째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임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들의 메시지를 단순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너희가 그를 죽였고,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으며, 우리는 그 중언이다"(행 2:23-24; 4:10; 10:39-40; 13:28-30).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은 인간의 편지를 하나님께서 뒤엎으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부활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또한 "높이셨다"(행 3:13; 2:33).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초기 설교와 그들의 서신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십자가를 그들의 메시지 가운데 탁월한 위치로 드러내고 있음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사도들이 왜 그리스도의 공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다음주에 계속

(이성록 목사)

2002 중헌단기선교

단기선교, 꼭 알아야 할 일들③

선교정탐의 목적과 의의

권투선수가 경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특기를 피하며 헛점을 정확히 공략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상대의 주특기를 피하거나 적절히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상대의 헛점을 정확히 공격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경기를 하길 전, 상대의 경력이나 주특기를 미리 파악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준비 없이 무작정 시합에 나간다면 분명 그 경기는 실패할 판이고 말 것이다.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선교란 문화권이나 언어권이 다른 나라·민족·종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나라나 민족, 종족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땅을 탐지(정탐)하도록 명령하셨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그 땅의 어머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 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무니라...". 선교를 하러는 나라, 민족, 종족을 정탐하여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눈을 감고 경기하는 어리석은 권투선수가 아닌 상대의 헛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곳을 노리는 권투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탐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이 정탐을 통해 각 나라와 민족, 종족의 가장 필요한 기도제목들 분명히 도출하여 집중적으로 중보할 수 있고, 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신실하심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여름 단기선교에는 아직 우리 교회에서 가 보지 않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를 선정하여 몇 개의 정탐팀들을 파출할 예정이다. 선교정탐이란 미전도종족 복음화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 '전략적 사역'과 '교회의 동원'을 목적으로 '한 종족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영적인 연구조사 활동'이다. 결국 정탐을 하는 목적은 첫째, 정보에 기초한 전략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미전도종족 선교에로의 동원을 위해서이며 셋째, 인도 전파의 수립과 교회 개척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이다. 우리는 이 선교정탐을 통해 이 나라와 민족,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하며 그곳에 가장 적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고등부 선생님들께



항상 저희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인사하신 장로님, 그리고 사랑하는 고등부의 모든 선생님들께, 올해도 어김없이 스승의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그렇듯이 스승의 날이면, 교회 선생님들은 다른 선생님보다 뒤편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교회 선생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사랑과 관심에 익숙해져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꺼려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승의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번에는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니다. 철없이 어린 저희를 위해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시며 가장 열심으로 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 한 마디 전하지 못한 저희가 너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주님보다는 친구를 더 생각하며 교회에 나왔기에, 분반공부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저희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저희가 고등부에 올라왔을 때부터 끊이지 않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학년에도 올라와 저희가 학생회라는 짐을 지고서 많이 힘들었을 때요,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감동으로 선생님들은 정말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프다고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 애쓰시는 모습들이요, 진실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항상 선생님들께 반기만 했습니다. 이제저는 저희가 선생님들께 배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비록 선생님들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 것 없이도,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순종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참된 일꾼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고등부의 모든 선생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선생님들의 앞길에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고등부 학생회 임원과 모든 제자들이 드립니다.

고등부 주소록을 내면서

정 성 민 (고등부 교사)

우리들만 꿈꾸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꿈꾸며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바로 구원입니다. 죽어가면 생명이 일어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꿈입니다. 이 꿈에 같이 동참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것! 그것이 고등부에서 추구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역은 내 자신의 꿈을 던져 볼만한 일이지요. 한 번 걸어 볼만한 의미있는 일입니다. 이 꿈은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그로 화려한 않지만 이 주소록이 고등부 영혼들을 살리는 데에 조그마한 생명의 씨앗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소록 작업을 하면서 내가 잊혀진다는 것보다 먼저 잊혀지는 사람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꿈꾸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나게 하신 여러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수련회 때 만난 사람들, 편집부를 통해 만난 아이들, 그리고 새롭게 만나게 하신 분반공부 친구들, 고등부를 통해서 만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를 스쳐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이 주소록 작업을 하면서 나 스스로도 모르고 지내던 사람들이 참 많았음을 알았습니다.

비록 이 주소록에 담은 얼굴들 가운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친구가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결코 만날 수 없었던, 소중한 사람들이기에 이 주소록은 저에게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소중하게 간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어봅니다. 그리곤 다시 숨을 잔뜩 들어 마셔 봅니다. 거기에는 5월의 따사로운 공기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다짐과 희망을 붙여넣은 것이기에 힘들어서 내쉬었던 한숨과는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었지요.

새로운 6월! 잊혀져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좋은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그러한 사람들 한 명씩 떠올려 봐요!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타협함에 관하여

박 철 홍 (전도사, 고등부 부지도)

선교지에서 맨손으로 밥을 먹으며 문화충격을 더욱 심할한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개인 접시에 자신의 음식을 놓고 먹는 외국 사람들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하나의 된장찌개 독배기에 서로의 수저를 거리낌없이 집어넣으며 떠먹는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 상상해 보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 식사법과 다른 문화의 식사법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그들의 타협 앞에 있는 이상 내 것들 포기하기 때문이다.

이두음에서 빛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문화의 충격은 있다. "오른편 빵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는 것" 등은 세상이 말하는 삶의 모습과는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이렇게 행하는 사람을 오히려 어리석다고 말한다.

세상과 성도 사이의 문화충격은 분명 존재한다. 문제는 그에 대한 적용이다. 동등적인 사람들은 쉽게 그 문화에 적응할 수 있다. 된장찌개는 각 그릇에 나누어 담음으로 서양문화와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내 문화도 이러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성도는 그 원리에 타협점이 없고 새로운 피조물로 된 전적인 나시 대이남(거듭나임)에 존재한다고 말한다.

오늘날의 많은 고등학생들이 타협을 시도한다. 이러한 많은 고등학생들의 신앙의 문제는, 학업과 신앙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려는 데에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학업과 신앙은 서로가 대립의 구도이며,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이다. 이러한 갈등은 내가 부인되지 않기에 일어난다.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학업은 나의(혹은 부모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분리가 문제의 발단이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고3과 그 부모들이 겪는 신앙과 학업의 갈등은 시간의 배분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그 갈등의 원인이 '학업을 하는, 대학을 가는 이유'가 주님을 위한 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을 따르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다. 대학입시도 예외일 수 없다. 내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자. 내 의지를 주장함에 앞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실 일을 기대함으로 준비하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학업에서도 드러나야 한다. 어떻게 유독 고등학생의 시기가 되면,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대학 입학 후에 하겠다고 서원하기를 드리는가? 입시와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위하는 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성도의 죽음 준비하기

3. 마음 가까이에

죽음은 삶의 기술입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이 끼쳤던 영향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마음 가까이에 항상 죽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 가까이에 죽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 않고 산 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마음 가까이에 두고 사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이 남을 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성도의 근본적인 사명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마음 가까이에 두지 않는 성도는 성도로서의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는 삶과 죽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죽음과 삶에 대한 자신의 경험, 자신의 말과 행동들이 삶과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분투하는 이들에게 전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고 느껴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마음 가까이에 두어 자신의 삶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죽음과 삶이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옳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의 삶이 예수님의 죽음 가까이에, 예수님의 마음 가까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앞서 한 말은 모두 흘려버리십시오. 예수님의 죽음 가까이에, 예수님의 마음 가까이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져 버리는 영향을 끼칠 것이 옳으니까요. 죽음을 마음 가까이에 둔다는 것은 천국을 마음 가까이에 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가까이에 나를 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마음 가까이에 두고 있습니까? 천국을 마음 가까이에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삶에 나타납니다. 당신의 삶에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구역탐방

죄인의 집

2교구 논현 6, 7구역

구역장: 김명순, 장장진 집사

이 구역에서는 연세가 많은 권사님과 집사님이 계시어 식사도 이 분들을 고려해서 준비하고 그 외 많은 부분들도 이 분들을 고려해서 이루어진다. 이처럼 구역

원들에게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들이 습관이 잘 되어 있어 식사시간에 늦은 한 성도를 위해 식사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분도 있었다.

말씀은 '가정에서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주로 나누었다. 삭개오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 그는 부유하였으나 채워지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 앞에는 영적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물질에 갈급함을 갖고 있는 않는가? '영적인 갈급함이 없이는 가정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구역원 전체의 생각이었다. '충현의 만나'에서 언급한 대로 만약 삭개오가 가정이었다면 그 가정은 변하여 가정예배를 했을 것이다. 그 가정이 변했다면 왜 변했을까? 그것은 삭개오가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구원을 찾으려고 발발했기 때문이다. 일단 처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신의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을 때 아마도 가족들은 그 일에 불만을 가졌을 것이다. 그것이 물질에 갈급한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다. 그러나 삭개오의 변화에 가족들도 서서히 감동을 받아 함께 변하여 갔을 것이다. 만약 삭개오가 영적인 갈급함을 느꼈던 것보다 물질에 여전히 미련이 있었다면 가족들은 변화가 힘들었을 것이다.

구역원들은 각자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고백했다. 가족들이 다 함께 가정예배를 하기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오히려 가족들로부터 핍박이 있는 경우가 많다. 한 성도는 각 가정이 변하기 위해서 삭개오가 영적인 갈급함을 느껴 구원을 갈구했듯이 구역원 각 개인도 가정에서 물질을 받아 함께 변하여 가는 모습보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모습을 더 보이라고 권유했다.

논현 6, 7구역은 이제 말씀을 나눈 대로 가정에서 영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일 것이고 그 모습은 가정을 예수 안으로 이끌 것이다.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 구원에 소망을 두면 가족들에게도 전염되게 마련이다. 충현의 성도들 모두가 영적인 갈급함을 항상 지니고 살아 가정을 변화시키길 소망한다. (권요섭 기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김동용♥김영희' 부부를 소개합니다

아들 둘을 둔 부부입니다. 아들들은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같은 동네에 살던 충현 교회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았고 서울로 이사오면서 충현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내 김영희 씨는 제작년부터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올해 권할 직분을 받았는데 남편 김동용 씨가 올해 3월부터 새가족주에 나오자 6개월의 새가족부 과정 동안 남편과 동행하면서 성경 말씀 쓰기를 마치고요 합니다. 요즈음 하루에 A4용지 4,5장씩 써서 일주일이면 30장을 달한다고 합니다.

처음 충현교회에 왔을 때 교회의 큰 규모가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쓰면서 받는 은혜가 커서 말씀에 순종하게도 애쓰고 있습니다. 어려서 교회에 다닐 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으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가족부 성경퀴즈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재미있었고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 실족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숙경 (새가족부 통신원)

[한국 교회사]
교단의 조직

미국 남장로교와 호주장로교 선교부간의 협의로 1893년에 '선교공의회'를 조직했다. 1901년 9월에 이를 '장로교 공의회'로 개칭하여 선교사를 외에 한국인 대표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06년에 이르러 장로교 공의회는 장로교 노회조직을 결의하고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07년 9월 17일 최초의 장로교 노회가 조직되었다. 이 노회의 공식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였는데 당시에는 노회가 하나뿐이었으므로 보통 '독노회'라고 하였다. 회장은 선교사인 마택(한국명 마조삼일)이었고 최원일은 한국인 장로 36명과 주한 장로교선교사 33명 등 총 78명이었다. 노회의 조직과 함께 가장 중요한 안건은 신경(信經)의 채택이었다. 이 때 '12개 신조'라는 신경을 채택했는데, 그 내용은 성경의 기본교리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 '12개 신조'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도 교회학 마땅히 가르쳐야 할 문답서로 채택하였다.

1907년 노회의 조직과 함께 한국 장로교회 사상 처음으로 일꾼 사람을 목사로 장담하였다. 이 때 목사안수를 받은 7인은 평양의 장로교선교회(1901년 개교) 제1회 졸업생들인데 서경조·한석진·양전백·방기창·김신주·이기풍·송진서 등이었다. 이들은 한국장로교의 첫 목사가 된 분들이다. 노회의 조직과 함께 또 한가지 뜻깊은 일은 이 해에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한 일이다.

1907년 독노회가 조직된 이후 한국교회 교세는 날로 부흥되어 갔다. 이룰 효과적으로 치리(治理)하기 위해 노회 산하에는 경주 황해 평남 평북 함경 전라 경상 등 지역별로 7대리회(代理會)를 두었다. 한국교회학 계속 발전해 감에 따라 노회가 조직된 지 5년 후인 1912년에는 장로교총회가 조직되었다. 즉 1911년 9월 17일 대구 남문교회에서 모인 제5회 노회는 7개 대리회를 노회로 승격시키고 총회를 조직키로 결의했다.

이 결정에 따라 1912년 9월 2일 평양에서는 7개 노회 총대 221명이 모여 장로교 총회를 조직하였다. 이것이 한국 장로교의 첫 총회인데 '조선 아소교 장로회 총회'였다. 총회장에는 선교사인 언더우드를, 부총회장에는 김신주 목사를, 서기는 한석진 목사를, 회계는 블레어 선교사(한글명 방위환)를 각각 선출하였다. 이리하여 장로교의 기구적인 조직이 이루어졌다. 이 때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장로교는 단일 총회 하에서 발전되어 갔다. 또 1912년 총회를 조직하면서 중국 산둥지방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여 1913년에 김영훈·박태로·사병순 등 세 목사를 파송하였고 계속적으로 중국선교를 확대해 갔다.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찬송은 조셉 헨리 길모어 목사가 1862년 3월 26일 예배 설교 후 시편23편에 감명을 받고 작사하였으며 윌리엄 브래드베리가 1864년에 작곡하였다.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노래한 이 찬송의 원문을 번역하면:

- 1절: 주께서 날 인도하십니다. 아, 거룩한 생각입니다. 하늘의 위로를 가득히 담은 말씀이구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날 인도하는 것은 역시 주님의 손이시로다. 후한: 주님 인도하십니다. 주의 손이 날 인도하시네. 그의 손이 날 인도하십니다 나 주를 찬송하리 따르는 자 되리라
- 2절: 때로는 가장 깊은 어두움 속에 있을 때도 있고 예전의 꽃만 동산이나 진한 풀자나 거친 바다일 수 있으나 역시 날 인도하는 것은 주님의 손이시로다.
- 3절: 주님, 나의 손이 주님의 손에 꼭 잡으렵니다. 결코 두들대거나 헐뜯지 않으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날 인도하는 분은 주님이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 4절: 이 땅에서 내 날 마쳤을 때, 주의 은혜로 승리했을 때, 비록 죽음의 한 줄기가 뉘어있더라도 나는 피하지 않으리니 주님이 날 인도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에는 인도하심의 확신뿐 아니라 감사, 만족, 또는 순례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격하지 않게 담담히 자신감을 갖고 찬송해야 하리라. 특별히 "거느리시니"(2,3,4단 끝부분)의 "거느리"부분의 발음으로 2개의 꼭 거사하고 음을 연결하여 헤가토(jegato) 부르면 주님의 손이 나를 꼭 붙잡고 인도하심이 느껴지는 찬송이 될 것이다. (반영위원회)



안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홍금복 성도(여86세)** 허벅지 뼈가 부러졌는데 심장이 약해 수술을 할 수 없어 치료 중입니다. 뼈가 빨리 붙어서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7교구 김성구 성도(남72세) 위암 수술 후 항암 치료 중인데 상태가 좋지 않아 자주 병원에 다닙니다. 힘겨운 치료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기훈 집사(남72세)** 간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건강 회복과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교구 이해철 성도(남39세) 위암, 간암 말기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것과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4교구 이옥순 성도(여47세) 몇 년째 양으로 투병 중인데 근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투병생활에 지치지 않을 것과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5교구 박혜순 집사(여59세) 교통사고로 요추 뼈가 함몰되어 수술했는데 3개월간 입원해 있을 예정입니다. 수월 부위가 빨리 완치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신태연 성도(여93세)** 뇌졸중으로 입원 중입니다. 한우와 가족들이 믿음으로 평

핸드벨 찬양대를 하며

김은유 (소년부 5학년)



핸드벨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에는 조금 떨리고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찬양대 연습을 마치고 핸드벨 연습을 하러 가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핸드벨 연습시간이 되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찬양대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핸드벨을 할 때에는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찬양대에 매 처음으로 찬양하러 나갈 때는 떨리면서도 어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핸드벨 찬양대를 계속 할 것입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저를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김홍미 (중동3부 부회장)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유아세례도 받았고 어려서부터 항상 엄마와 함께 교회에 다녔다. 6학년 때부터 면려의 활동을 해왔고 작년엔 회장, 올해엔 부회장까지 맡게 되었다. 남들이 보면 교회생활을 정말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단지 난 남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해 왔던 것 같다.

어때껏 나는 이쁜만 반결반결했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 같다. 매년 초, 올해엔 성경책 열심히 읽고 교회 일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지만 일 주일도 가지 못했고, 교회 수련회에 가서 눈물도 기도하며 회개를 해도 집에 돌아오면 다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좋은 믿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지 확신이 잘 서지도 않은 게 나의 모습이었다.

몇 일 전 국사 시간이었다. 기독교 박해에 대해 배우다가 선생님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성경책을 한권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있다고 물어보셨다. 교회 다니는 애들은 많은데 성경책 한권 제대로 읽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정말 부끄러웠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신 준비해두신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한 다면 난 정말 후회할 것 같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늘의 복을 위해 아낌처럼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믿음도 더욱 자랄 수 있도록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하겠다.

지라의 생

말라기(Malachi)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①

여섯 개의 예언으로 이루어진 '말라기' 서(書)! 구약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말라기'는 포로 귀환과 더불어 성전을 재건한 뒤에 점차적으로 형식과 나태함에 빠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단호한 경고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 전에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구약성경을 끝맺는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엘리야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과 회개의 문제로 구약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말 4:4,6).

그리고 400년! 세례 요한이 광야의 외치는 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기까지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이들이 400년이라는 긴 침묵의 세월로 말미암아 '말라기'의 예언을 잊거나, 또는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더욱더 고대하였을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을 겪던 400년의 세월만큼 '말라기' 이후로 400년이란 오랜 침묵의 세월이 흘렀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모세의 뒤를 따라 '출(出)애굽'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새 이스라엘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보편적이고 영적인 출(出)애굽이 역사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말라기'를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내' 산에서 맺으신 언약을 유지하고 계심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말 1:2,6; 2:10; 4:4). 즉, '사내' 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이스라엘은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고(1:6-14), 제사장 제도를 왜곡시켰으며(2:1-9), 종혼함으로써 결혼 서약을 파괴했고(2:11-16), 억압하고 하나님의 것을 탈취했으며, 하나님을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3:5,8-15). 그러므로 '말라기'는 언약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는 '심판의 날'과 함께 '엘리야'를 통한 새로운 '치료의 날'을 경험할 것을 예언합니다(말 3:1-4, 4:1-6). (다음주에 계속)

김동희 목사(출판국 지도)

믿음의 학교에서

안식일(sabbath)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창세기에서 처음 언급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옛날 동안은 너희의 일을 힘써 하고, 노동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노동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칠 일은 하나님의 날이니 쉬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은(다른 모든 계명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참 의미를 모르고 형식적인 규례에만 매어있다면, 인간은 율법에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시기는 안식일의 참 의미는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출 20:11, 신 5:15).

또,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로 만사를 받을 때부터 안식일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만나는 하루 분방에 거둘 수 없었고, 하루를 남기면 꼭 먹었습니다. 그러나 6일에는 이틀씩을 거두어도 썩지를 앓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의 바른 의미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먹을 것(만사)을 주는 이도 바로 나야. 금송아지도, 바알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인 나를 잊지 말아라. 안식일(칠 일)이 되면, 6일 동안 모든 만물과 너희 인간까지 창조한 그 일을 마친 나를 꼭 기억하라. 그것만이 나와 바른 관계 속에서 계속 축복을 받는 길이다". 만사의 사건 이단 때는 칠일이 만사를 거두러 나간 자도 그냥 바 주시지만(출 16:28-29), 시대상 언약 이후에는 안식일을 어기면 죽었습니다(민 15:32-36).

그러나 안식일에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마 12:8). 이제 그분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진정으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모를때 안식일은 오직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규례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2장에는 제사들이 이삭을 잘라먹은 일과 손바른 사람이 고침받은 일을 놓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배후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전혀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느끼고 깨달아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의 참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바른관계가 축복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주권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권형익 기자)

교회 소식

알림

1. 제3차 학습·세례식 안내
2002년도 제3차 학습·세례식이 5월 25일에 있습니다. 학습 및 세례·입교·개종을 원하시는 성도들은 담당교역자에게 연락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 6월 정기집회
일시: 5월(수) 오후 2부 예배 후
장소: 신교관 5층 대강당실
- 전통 칠요일새벽기도회
일시: 3월(일)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9호
- 안수집사회 회교새벽기도회
일시: 4월(일)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9호
- 간혹위원회 월례회
일시: 오후 1600
장소: 교육위원회실
- 간혹위원회 월례회
일시: 5월(다움주일) 15:10
장소: 매추기각동
- 안수집사회 월례회
일시: 오후 15:30
장소: 교육관 212호 유아부실
- 간혹위원회 월례회
일시: 5월(수) 오후 2부 예배 후
장소: 유아부실

남녀전도회

- 바울 6월의 월례회
일시: 5월(다움주일) 15:00
장소: 교육관 401호
- 오한 17월의 월례회
일시: 오후 19:00
장소: 사탄동 한신교회 115801
이후론 집사처 707-0066
- 안나 4월의 월례회
일시: 5월(다움주일) 교육모임 후
장소: 영아부실
- 안나 4월의 월례회
일시: 5월(다움주일) 15:00

*2차 CMC/장소: 베다니홀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일반(6/2), 토요일반(6/8) 9강 선교의 의미와 역사(이종대 목사)

주일반(6/9), 토요일반(6/15) 10강 응급처치/재회예배

*2차 CMC 집중반/ 6월 6일 (09:00-21:30), 제 2교육관 4층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2교구 카자흐스탄 5월 21일(화)-6월 4일(화)

5교구 우즈베키스탄 6월 4일(화)-6월 12일(수)

지난 20, 21일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으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11, 16교구 선교팀이 지난주 5월 29일(수)에 무사히 귀국했다. 단기선교를 통해 선교전 복음의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에 뿌리내려 자라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자.

남녀전도회 전도제미나 및 영성훈련

일시: 4월(화) 19:00

장소: 결빌리홀

대상: 각교구 전도의 화경, 부흥회, 서기, 회계, 부서기, 부회계, 전도부장

2002 외전부 의료선교의 날

국내외국인 선교부에서는 외국인 형제자매들에게 의료선교부의 지원으로 외전부 의료선교의 날 행사를 갖습니다. 의료선교로 예수 그리스도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번 행사가 주위에 있는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16일(주일) 10:00-16:00

장소: 아덴홀(본당 지하1층)

선교로(내과, 외과, 부인과, 안과, 치과, 한방과)

대상: 외국인 형제 대

새·가·족·을·한·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383	윤남영	1	에스터	393	김지연	17	청년2부	홍성국(17)	
384	목영성	10	에마다부	394	고영심	1	청년2부		
385	김갑남	10	에마다부	395	김미희	8	청년2부	신정숙(8)	
386	신인규	19	대학부	396	은희정	10	청년2부	김영희(2)	
387	장효정	19	청년1부	397	유인규	13	청년2부	김은자(1)	
388	안경호	19	청년2부	398	박대현	11	청년2부		
389	전혜복	1	청년2부	399	조유진	11	청년2부		
390	장진이	19	청년1부	400	김정	1	청년2부		
391	김지희	19	청년1부	401	함송옥	1	청년2부		
392	홍상진	17	청년2부	402	박장은	17	청년2부	이형탁(17)	

*송헌교회와 한 가족이 되어주실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카드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3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5월 9일 (주일)	1교시 15:00-15:50	성경개조 (강교성 목사)	교목관 314호	교목관 (서광진 목사)	교목관 307호	
	2교시 16:00-16:50	가톨릭 (맹해성 목사)	314호	구원관 (유관문 목사)	307호	
6월 16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조 (이윤진 목사)	교목관 314호	세례관 (김병현 목사)	307호	유아세례관 (이종대 목사)
	2교시 16:00-16:50	본당	교목관 314호	본당	교목관 307호	
6월 23일 (주일)	성인 학습·세례식 (서재현 목사, 본당)			유아 세례식 (오주 5시, 베다니홀)		

다음주 새벽기도회 답말

	3(월)	4(화)	5(수)	6(목)	7(금)	8(토)	9(주일)
실교자 기도회	김교성 박정국	송길환 김경원	이유진 전운배	이수근 김중진	안장덕 박용근	방준영 김연식	정진호 이옥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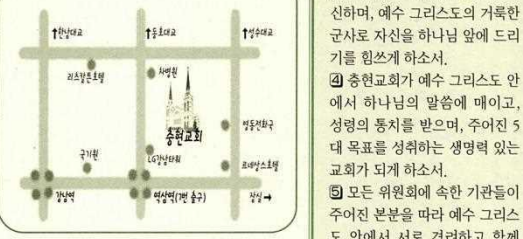
직원모집

총천기도원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 여자 1명
- 지역 세례교인으로 만 55세 미만인 자
- 부름 식당
- 재출 사류
- 자립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 서류 제출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총천기도원 사무국
- 문의
- 총천기도원(031-766-5425)
- 참조사항 숙식제공

본당에서 총천교회

교회 오시는 길



예배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오후 2:00	본당
	II 오후 7:00	본당
	III 오후 11:00	본당
	IV 오후 10:00(새벽예배)	본당
	V 오후 10:00(새벽예배)	본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1:00-11:00 II 오후 7:30	본당
금요일예배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심·기·을·분·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진로

김의철	김은호	노경환	오전근	이병학
신교부총장	성경연구원	영광교회	12교구	12교구
윤인현	최태현	엄필성	강도용	오정현
신교부장	총무부장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이훈	남남수	정운석	김영길	문홍구
전담부장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조인재	김종구	최무길	김진태	이창호
유전부장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차신숙	박영식	김광남	이종석	윤성철
법정부장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이하영	이병욱	안종욱	임두원	이종심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최기훈	이갑재	전홍용	전홍현	이정우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김단용	황영일	한승규	김영수	장홍식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김환기	한용철	이희수	안동현	황의만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김구형	최은덕	이계인	박익환	이태식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전태수	박용규	권명호	조종환	배준식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김재원	이성호	박찬식	최지훈	노영환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박철구	정영진	신상수	강철형	고계수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김영은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서광진	정병성	이준경	박기근	여정기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류병복	노경록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김성규	송길환	이수근	이윤진	안장덕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방준영	나광영	정희호	김용덕	이성욱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고광환				
신학교				
■ 찬양감독 김영구				
■ 기도 사 이영철				
■ 여전도사				
전현희	김정자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김옥을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김갑자	안혜순	최희선	김정연	조옥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강득길	김정진	장혜구	최문실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 고정전도사 박영덕				
■ 선교전도사 정은희				
■ 단기선교사				
■ 단기선교사				
■ 협력선교사				